

이은재 | 부전문위원 (제 6309)

- 주요 뉴스: 우크라이나군 하르키우에서 영토 탈환 중. 러시아 외무장관은 협상 여지 언급
 - 금주 미국 8월 CPI 발표를 통해 다음 주 FOMC 금리인상 규모를 가늠
 - 독일 중앙은행 총재, 유로존 고물가 상황 지속시 ECB는 더욱 명확한 조치 필요
 - 미국 재무부장관, 올겨울 미국 유가가 재차 급등할 가능성을 우려
- 국제금융시장(주간): 미국 증시는 달러화 약세, 위험자산 과매도 인식 등으로 상승
 주가 상승[+3.7%], 달러화 약세[-0.5%], 금리 상승[+12bp]
 - 주가: 미국 S&P500지수는 반발 매수세 유입 등으로 4주만에 주간수익률 반등
 유로 Stoxx600지수도 1.06% 동반 반등
 - 환율: 달러화지수는 유로화 강세 및 연준 위원의 물가둔화 시사 등이 영향
 유로화가치는 0.88% 상승, 엔화는 1.59% 절하
 - 금리: 미국 국채금리는 양호한 경제지표 및 통화긴축 지속 전망 등이 반영
 독일은 ECB의 고강도 긴축 등으로 17bp 상승

※ 국내 외환시장은 9일 휴장, CDS(주간)는 1bp 하락

		9/9일	9/2일	전주말대비			9/9일	9/2일	전주말대비
주가	미국	4,067.4	3,924.3	3.65%	국채 금리 10y	미국	3.31%	3.19%	12bp
	유럽	420.37	415.97	1.06%		독일	1.70%	1.53%	17bp
	중국	3,262.1	3,186.5	2.37%	CDS 5y	한국	31bp	32bp	-1bp
	일본	28,215	27,651	2.04%		중국	66bp	73bp	-7bp
	한국	휴장	2,409.4	-	위험 지표	EMBI+	418	442	-24bp
환율	달러지수	109.00	109.53	-0.48%		VIX	22.79	25.47	-10.52%
	유로화	1.0042	0.9954	0.88%		WTI유	86.79	86.87	-0.09%
	엔화	142.47	140.20	-1.59%	원자재	구리	358.1	342.2	4.66%
	위안화	6.9265	6.9000	-0.38%		금	1,716.8	1,712.2	0.27%
	원화	휴장	1,362.6	-					

주: 주가는 미국 S&P 500, 유럽 Stoxx 600, 중국 상해종합, 일본 닛케이225, 한국 KOSPI. 환율은 달러화 대비
 통화가치 등락(+/-는 절상, 절하). 자료: 블룸버그

금일의 포커스

- **우크라이나군, 하르키우 지역에서 영토 탈환 중. 러시아 외무장관은 협상 여지 언급**
 - 11일 우크라이나군은 북동부 하르키우 지역에서 쿠피얀스크(Kupyansk)와 이쭈름(Izyum) 등 1,000 평방마일 이상을 탈환, 러시아와의 전쟁에서 주도권을 획득했다고 발표. 이들 지역은 푸틴 러시아 대통령의 돈바스(Donbas) 지역 장악을 위한 요충지였음
 - 외신들은 이 같은 우크라이나군의 진전이 지난 수개월간 미국과 동맹국들로부터 HIMARS 로켓 등 강력한 무기를 공급받은 결과이며 10일 러시아군의 후퇴는 2월 우크라이나 전면 침공 이래 가장 큰 실패라고 평가
 - 우크라이나군의 반격에 대한 푸틴 대통령의 반응은 불확실. 다만, 러시아 현지 언론(RBC)에 따르면 러시아 외무장관은 여전히 양국간 협상을 포기하지 않았으며 협상이 지연될수록 합의 도달이 어려울 것이라고 발언
 - 우크라이나가 전쟁에서 승리하기까지 갈 길이 멀었으나, 전장에서의 입지 개선은 향후 러시아와 평화협상에서 우크라이나에 유리하게 작용할 것이라는 시각이 중론

글로벌 동향 및 이슈

- **금주 미국 8월 CPI 발표를 통해 다음 주 FOMC 금리인상 규모를 가늠**
 - 시장에서는 13일 8월 CPI 발표치를 8%~8.1%로 예상 중이며 7월 8.5%에서 소폭 하락할 것이나, 역사적으로는 여전히 높은 수준을 기록할 가능성에 무게
 - 8월 CPI 결과는 최근 양호한 고용지표, 탄력적인 가계지출 등 데이터와 더불어 다음주(9.20~21) 9월 FOMC에서 추가 75bp 인상 여부를 가늠하는데 도움
 - 연준 인사들은 최근 연설에서 9월 금리인상폭에 대해 여러 가능성을 열어두었으나, 고물가는 차입비용 부담으로 수요를 둔화시킨다고 강조
- **독일 중앙은행 총재, 유로존 고물가 상황 지속 시 ECB는 더욱 명확한 조치 필요**
 - 올해 12월경 유로존 물가상승률이 10%를 상회하면서 정점을 기록할 것이며 내년도에는 물가 상승세가 소폭 진정되겠지만, 6%이상 높게 지속될 가능성
 - 하반기에는 유로존 경제가 더욱 쇠퇴하거나 위축될 수 있으나, 경기침체는 얕은 수준일 전망. 중장기 경제 성장을 위해서는 가격 안정이 매우 중요하다고 평가

■ 일본 관방부장관, 과도한 엔화 약세에 정부가 적절하게 대응할 필요

- 엔화가치가 24년래 최저치를 기록하는 등 과도한 하락세를 보임에 따라 일본 정부가 적극적인 대응 조치를 취할 필요성이 증대. 이는 엔화 약세 움직임에 대한 당국의 깊은 우려가 강조된 최근 발언

■ 자넷 옐런 미국 재무부장관, 올겨울 미국 유가가 재차 급등할 가능성을 우려

- 올해 겨울경 유럽연합은 대부분의 러시아산 원유 구매를 중단할 것이며 러시아의 석유 운송 서비스도 제재됨에 따라 유가가 재차 급등세(spike)를 보일 소지
- 러시아산 원유 가격 상한제는 러시아의 원유 매출을 억제하면서 유가 상승을 제어할 만큼의 공급을 유지하도록 설계되었으며 향후 가격 급등 사태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

■ 이스라엘 정부인사, 11월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이란 핵협상 합의는 어려울 것

- 이스라엘 총리의 내각 브리핑 이후 이어진 정부 고위급 인사 인터뷰에서 미국 중간선거 이전에 핵합의 서명 가능성은 낮다고 평가. 평론가들은 핵협상이 공화당 선거 캠페인에 활용될 것을 감안, 바이든 대통령이 빠른 합의를 꺼릴 것이라고 해석

■ 스웨덴 총선, 출구조사에서 중도좌파연합이 오차범위 내 우세

- 공영방송 여론조사에서 중도좌파연합 49.8%, 보수우파연합 49.2%으로 박빙 승부. 극우 성향의 스웨덴민주당은 20% 이상의 득표율로 중도우파 온건당을 처음으로 압도

주요 경제지표

■ 주요 경제지표 발표 내용(9/10~11 현지시각 기준)

- 러시아 8월 CPI(전년비) : 14.3%, 예상치(14.3%), 1분기(15.1%)
- 미국 2분기 가계자산 증감(전분기비) : -6.1조달러, 1분기(-1471억달러)

■ 주요 경제 이벤트(9/12 현지시각 기준)

- 영국 7월 산업생산 및 무역수지, 독일 7월 경상수지
- 중국·홍콩 추수감사일 휴장

국제금융센터의 사전 동의 없이 무단 전재 금지 ; 본 자료 내용에 의거하여 행해진 투자행위 등에 대하여 일체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문의: 02-3705-6226, E-mail ejlee@kcif.or.kr